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5.3.20.(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구종상 위원장, 이경화,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위원 8인(최은수 부위원장, 임태순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시청자센터 부장

■ 특이사항

회의 당일 녹음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녹음이 안되었습니다. 당일 보도본부장 발언 부분은 미리 준비한 해당 부서장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였기에 양해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종상 위원장

- 성원이 되었습니다. 3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영상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뉴스오늘, 라이브투데이, 뉴스워치, 뉴스24, 뉴스01~04, 인사이드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만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나 불규칙한 방영일 등에 대한 정보가 게재되길 바랍니다.

- 프로그램 중에서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이 담는 주제가 좋습니다. '뉴스'를 주로 하는 방송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최근 만학도에 관한 내용도 좋고, 청년 퇴사, 건강 등 대다수의 주제가 적절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잔잔한 프로그램 흐름도 방송사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시의적절한 주제를 계속해서 선정한다면 프로그램 고정 시청층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수에 비해 조회수가 낮았습니다. 연합뉴스TV만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도 좋고, 조금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썸네일을 등록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클립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것인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짧게 적힌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 유튜브 클립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 시청자들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설명란에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과 정보를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 디지털뉴스부 답변서 대체

과거 영상 송고를 담당하던 연합뉴스 영상운영팀에서 프로그램별로 송고해야 할 경우 업무 시간, 인력 등의 문제로 방영 프로그램 전체를 등록·관리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업무가 연합뉴스TV 영상송고팀으로 이관된 만큼 관련 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영상송고팀이 신설돼 안정화되는 단계이니 우선 프로그램별 대표 코너 VOD를 게재할 수 있도록 송고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추후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한 전체 프로그램 VOD 게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콘텐츠제작부 답변서 대체

연합뉴스TV 스페셜은 지난 주 방송이 368회로, 7년 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짧은 뉴스에서 깊이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주제를 담아내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주제 선정에 있어 시청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뉴스부 답변서 대체

다음달을 목표로 유튜브 채널 개편을 준비중입니다. 썸네일 형식과 구성 방식을 새롭게 할 예정이며, 자체 제작물의 경우 분량과 크리에이터의 진행방식 등에도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 구종상 위원장

최은수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최은수 부위원장(서면 제출)

- 전반적 평가, 보도 뉴스가 계엄 뉴스에 집중돼 있었지만, 다양한 뉴스가 보도되면서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 스포츠, 경제 뉴스 등을 부각해서 내보내려는 시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합니다.

- 객관성과 바이어스, 다른 보도채널과 비교해서 앵커의 숙련도가 돋보입니다. 진행도 균형을 잡아주려는 멘트가 나오고 있어 회사에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와 양측 입장을 다루려는 균형감을 갖춘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화면 구성 및 CG/자막, 표현 방식, CG/자막 구성, 보도 흐름에 따라 시청자에게 특정 프레임을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이 가끔 등장하고 있어, 신중을 기하면 좋겠습니다. 국민 분노 확산, 도다시 논란, 도덕적 논란 휘말려 등의 표현은 근거 없이 시청자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취재부국장 답변서 대체

지난달부터 계엄 사태 특보 이전에 진행하던 각종 코너와 프로그램을 되살리는 한편,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불경기와 물가 양등, 기상, 스포츠 등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고 생활에 중요함에도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다루지 못했던 뉴스의 비중을 서서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엄과 탄핵 이외의 뉴스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다양하고 필요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적절히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뉴스총괄부 답변서 대체

균형면에서 말씀하셔서 정치대담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정국이 예민한 만큼 현안 대담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대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야의 공방을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고, 자막이나 질문면에서도 양측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추측식의 질문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여야 패널의 입장과 반론권 모두 동등하게 다루주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대담이 저희 채널의 색깔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만큼 향후에도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앵커들에게도 더욱

신경쓸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 취재부국장 답변서 대체

저희 연합뉴스TV는 '있는 그대로의 뉴스'를 대표 문구로 내건 보도전문채널로서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 분량부터 표현까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란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는데, 이를 둘러싼 찬반 혹은 비난과 옹호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때 쓰는 표현으로, 특정한 쪽으로 의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치, 사회적 편향,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걸러내 중립,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2025.2.17.)에 실린 기사를 다루어 본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모 라디오방송 '정오의 희망곡' 여성진행자가 가상아이돌 -플레이브-에 대해 자신이 의견(적응이 안된다, 우리 방송 못 나온다)을 솔직하게 공개하였다. 이를 들은 플레이브 팬들이 플레이브를 비하한 행위라는 이유를 내세워, 방송사에 진행자 하차 요구, 진행자 계정 악플 도배 등의 행위를 하였다. 결국 여성진행자의 진중한 사과로 사태는 마무리지어졌다. 뉴스프라임은 여성진행자 발언 사건에 김새론 사건을 덧붙여 악플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여기서 '뉴스프라임'은 여성진행자의 사과 메시지와 악플 현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가상아이돌의 생성과 실종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자 매년 노력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다면, 여성진행자의 발언이 과연 사과/사퇴를 초래할만한 문제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여성진행자가 공학적 감성(비대면·비접촉의 디지털 특성을 가깝게 느끼는 행동)이 부족한 탓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에 대한 이해 부족상태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정오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청취 가능한 청취자층은 학령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자영업자와 어르신들이 된다. 이들은 가상아이돌 그룹에 대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으며, 여성진행자는 라디오청취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진행자에 대한 공격은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조금 달리 생각하여 공학적 감성을 가진 플레이브 팬들이라면, 여성진행자의 발언에 대해 성숙한 자세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가상아이돌을 모르는 청취자들에게 가상아이돌 그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해 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플레이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팬층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추론된다.

이와 동시에 악플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뉴스프라임 기사에서 언급해 주는 것도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노력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행자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갖는 청취자에게는 관계기관 신고를 통해 방송심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방송사 게시판 운영팀에게는 임시조치와 같은 기능을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어야 방송통신환경 정화 및 언행 자정 능력을 증대시켜 바람직한 사회규범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 칭찬합니다. '젊은 피,디'는 6분~10여분 이내의 짧은 영상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보호활동의 일환으로 온라인모니터링을 해 오면서 만난 프로그램이다. 영상접속 불가 상황을 만나 첫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움게도 모니터링을 하면 할수록 교육현

장에서 다루기 힘든 주제를 쉽게 그리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유익한 프로그램(카페가 제 연
기학원이죠? 대한민국 입시 저격!, 중학생소설가까지, MZ세대들이 파는 요상한 물건의 정체
등등)이다. 방향을 잃고 힘들어하는 청소년, 반려견이나 인형이 되겠다는 아동들, 그리고 자
신의 내면의 고민을 외부로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아동들에게 그들의 꿈에 동기를 부여해 주
고 미래설계의 안내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TV는 유튜브만 아는 요즈음
아동·청소년들 모두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 스포츠문화부 답변서 대체

말씀하신 것은 단신이었습니다. 우선 단신 제작에 대해선,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당일의 현상이었기에 김신영의 입장까지 담아 제작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김새론 사건
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김신영이 사과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단신에서 다루기는
어려워 보이며, 향후 세대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충돌, 갈등, 공인에 대한 악플 현상에 대해
다루는 기사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뉴스부 답변서 대체

젊은피,디는 MZ 세대들의 생활패턴과 사고방식, 직업관, 관심사 등을 집중 조명하는 콘텐츠
입니다. 섭외, 취재, 구성, 편집을 홀로 맡고 있는 김지우PD는 현재 연합뉴스TV 디지털뉴스
부에서 가장 젊은 직원입니다. 김PD가 MZ세대와 눈높이를 맞춘 남다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김광석 위원

- [정신채린!삶의현장] "아저씨·누나들 괜찮아요?"...서울역 담당 경찰의 마지막 인사
2025-02-15 11:32:41, 전국에서 1명뿐인 "노숙자 전담 경찰관"은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가
기에 10분 동안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노숙자 분들을 위
해 헌신하는 경찰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삭막한 도
시생활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힘든 분들에게 의무가 아닌 봉사의 정신으로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경찰관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인간미가 남아 있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희망
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리부팅 지방시대] 외국인 이 온다(외국인 1편) 2025-02-24 14:15:38, [리부팅 지방시대] 大
이민의 시대(외국인 2편) 2025-03-04 11:40:49, 인구절벽시대에 외국인의 한국 유입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우리 사회에 외국인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온다(1
편, 2편)"는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유입 초기에는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제는 외국인이
260만 시대에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운 기술을 자국에 가서 활용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남아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프로그램
은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그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여 정부당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단초를 제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겪
고 있는 인구 감소시대에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정책이나 활용방안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
니다.

▲ 디지털뉴스부 답변서 대체

'정신채린 삶의현장'은 뉴스 속에서 한번쯤 들어본 주제를 안채린 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해당 주제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콘텐츠입니다. 단순 인기 콘텐츠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취재할 수 있는' 현장과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미디어사업부 답변서 대체

인구절벽 시대에서 외국인의 유입과 그들의 사회적 역할 증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본 프로그램이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고민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순 위원

백종원 된장, 국산이라더니 '중국산' 원료 논란..."법 인지 못해" 사과 2025.03.11. 15:48:42, 본 방송은 기업인이자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대표(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논란 건으로 많은 매체에서 본 내용을 다루고 보도하였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생산하는 된장에 중국산 원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이며 해당 업체인 더본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인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포함되었으며 더본코리아의 자사몰인 더본몰에서는 해당 제품을 '시골집 된장의 깊은 맛 그대로' 라고 홍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본 제품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에선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며 현재 본 건은 농지법 등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더본코리아측의 해명은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는 국내산 수급이 어려우며 법령을 준수한 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제품 생산을 타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방식 전환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원대표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인으로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새로운 요리와 레시피, 소스 개발 등 이 분야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진 공인으로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더 엄격한 잣대의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SNS 등의 영향으로 K푸드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지금 전반적인 식품 표시 사항(원산지 표시, 허위·과대광고) 등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농·축산물명예감시원 제도, 컨슈머아이스 활동 등 온·오프라인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의 지킴이로서 위생, 안전, 표시사항, 허위 과대 광고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건은 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인으로서 중요한 부분인 원산지 표시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마치 국산 제품인양 과대광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면> 기사 내용에 해당제품 및 표시사항을 함께 보도한 부분은 소비자 이해를 돕는데 적합했으며 향후 식품안전 차원에서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부 답변서 대체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안전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인만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 < 연합뉴스TV 스페셜 365, '월세 1만 원'으로 귀촌, 그들이 시골로 간 까닭은? >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해 귀농(귀어) 사례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의도로 시기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전라남도 강진군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임대지원사업, 남해군의 어선청년임대사업 등 외 타 지자체의 귀농(귀촌)에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 방송 시간 상 여러 지원사례를 다루기가 어렵다면 별도로 지자체별 지원사업 및 관련 사이트를 그래픽 처리했다면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첫 번째 귀촌 사례자(송현창, 남궁남조 부부)의 경우처럼 귀농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자녀 교육 문제로 다시 도시 회귀를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세대의 귀농자들 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녀교육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 해결방안까지 취재하였다면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귀농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 리부팅 지방시대 : 외국인 이 온다(외국인 1편) > '23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이 24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이제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대부분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또한 내국인과 같이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단순히 국내 근로자가 기피했던 3D 업종의 근로자가 아닌 제조 현장 뿐만 아니라 대학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을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현실과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해법을 증가하고 있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국내 거주 외국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기획의도는 매우 참신하고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제목에서 '리부팅 지방시대 ; 외국인 이 온다'라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심각한 지방 공동화 해법으로 외국인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의 60%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제조업과 건설업 등 내국인 기피업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취재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례를 추가로 취재하였으면 프로그램 제목처럼 외국인이 리부팅 지방시대의 해법으로써 기획의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 의정 갈등 1년째 공회전 ... 위태로운 의료 현장과 환자들 > 동 프로그램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 역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료 공백 심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재정 손실(3조 3천억원) 등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기획의도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한의학회장,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환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심각한 의료 공백에 대한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의료갈등

의 양대 축인 정부 관계자 인터뷰가 없어 그게 다소 아쉬웠습니다. 현재 의료 갈등 해결의 중요한 중심축인 정부 측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다뤘다면 더욱 알찬 프로그램이 됐을거라 생각합니다.

▲ 콘텐츠제작부 답변서 대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자체 지원 정보와 자녀 교육 문제는 귀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귀촌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제한된 방송 시간에 다루기 어려웠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촌에 관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다루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 미디어사업부 답변서 대체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외국인 거주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소멸 문제와 맞물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에 공감합니다. 이번편은 외국인의 역할 변화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기획 의도를 갖고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참신성과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외국인을 활용한 지방 활성화 사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더욱 보완되었다면 기획 의도에 더 부합했을 것이라는 의견 또한 중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 기획 때는 외국인 노동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국내외 정책 사례를 추가적으로 조명하여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취재부국장 답변서 대체

해당 뉴스프리즘은 1년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피해와 해결방안을 짚어 보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리포트 중 기자의 멘트로 언급되고 있는데, 별도 인터뷰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리포트 시간과 분량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는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기존에서 바뀐 상태가 아닌데다 의사들이 정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신 키를 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중재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 안서연 위원

- [신속뉴스]에서 "가세연 배상금 알뜰하게 쓰겠다던 조민... 3,200만원으로 테슬라 차량 구매" 보도에 관하여, 신속 뉴스 한 편을 보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며, 최근 셀럽들의 SNS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도하는 인터넷 뉴스들이 많은데, 연합뉴스TV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위와 같은 보도 행태에 편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뉴스에서는 미국의 전세계를 향한 관세 압박 상황을 자세하게 적시에 보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쿼터제 폐지를 활용한다거나, 중국보다 기술력이 있는 특수철강 등의 분야에서 극복하여야 한다는 등의 전문가 인터뷰를 동반한 대안 제시도 좋았습니다.

- [젊은피,디]에서 폐차장 보도는 활력이 넘치고 독특하였습니다. 폐차장 업종이 환경 분야에 기여하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PD분이 폐차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아 보였고, 안전에 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리 등을 부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져서 시청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 디지털뉴스부 답변서 대체

- 지적하신 것처럼 가치있는 뉴스를 찾아 보도할 수 있도록 아이템 선정에 더욱 공을 들이겠습니다.
- 제작팀의 안전은 물론 제작물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취재현장에서 안전의식을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명희 위원

2025.3.6. 포천에서 민가에 포탄이 떨어진 사고를 연합뉴스TV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당일 속보 10 여차례 및 추가 방송이 있었고 정치권의 진상 조사 촉구, 공군 참모 총장의 사과 보도를 뉴스로 볼 수 있었습니다. 3.7~3.11일까지 관련 뉴스가 계속 보도 되었고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사고 수습 과정들을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한 사고였으며 군인 및 민간인 30여명 다쳤으나 사망자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월10일 저녁 뉴스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 재구성을 방송 해주셨고 3월11일에는 공군, 포천 전투기 오폭 관련 지휘관 2명 보직해임 기사도 방송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건 보도를 보면서 연합뉴스TV의 신속성을 알게 되었고, 사건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재발 방지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릴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도 관련 뉴스 계속 보도해주시고 다시 한 번 사건 정리해서 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취재부국장 답변서 대체

말씀하신대로 사고 당시 속보 자막을 공중파, 종편 등은 물론, 경쟁매체에 비해 빠르게 송고해 시청자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렸습니다. 대형 사고와 재난은 언제나 저희 연합뉴스TV가 속보와 정확한 정보 전달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항목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와 재난에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 당국의 대책준비와 국민들의 안전 대비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 지난 2월 26일, 연합뉴스TV의 문화·연예 관련 프로그램 <센터 엔터>가 약 6개월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6일 방송이 중단된 이후 정확히 6개월 만에 다시 첫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예계 및 문화 분야의 주요 소식을 단신 형식으로 정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됩니다. 첫 방송에서는 연예계 소식뿐만 아니라 국내외 문화 소식도 일부 포함되었으며,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2월 26일 첫 방송에서 언급된 "올해 영국 부커상 후보 선정에 한국 작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제외하면 문화 분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또한, 2월 28일 방송에서는 방송인 김홍국 씨와 관련한 정치적 이슈가 포함되었는데, 연예인 관련 기사라 할

지라도 보도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해 신중하게 포함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엔터>는 보도 전문 채널로서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뉴스 편성을 보다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예계 소식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 분야의 보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다 균형 잡힌 문화·예술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관련 보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 관련 보도,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 관련 소식 등 3월 들어 북한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도발 등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북한은 한국이 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보도를 넘어 보다 전략적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뉴스포커스>나 <뉴스프라임>과 같은 심층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집중 조명하고, 그 의도와 향후 전망을 다루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단순한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국제 정세와 연계된 전략적 의도 인지 분석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는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시청자들이 현재의 안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스포츠문화부 답변서 대체

센터 엔터의 경우 '문화'가 아닌 '연예' 관련 단신만 추려 코너로 보여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당일 부커상 이슈가 함께 묶인 것이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국씨와 관련등 정치적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신대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센터엔터 코너에 들어가는 연예단신들은 이 코너에만 반영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다른 문화 단신들은 매 시간 조금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코너로 묶이지 않아 다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예는 물론 문화 관련한 소식도 풍부하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취재부국장 답변서 대체

저희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와 함께 북한 관련 뉴스를 가장 다양하고 신속히 다뤄온 매체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폐쇄성으로 인해 정보당국이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사후 오보로 판명된 뉴스가 많은 분야로 꼽힙니다. 최근들어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북한 관련 뉴스와 정보가 저희의 강점이기도 한 만큼, 다양한 입수와 확인 노력을 벌여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임태순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임태순 위원(서면 제출)

- 20초 만에 바다 아래로...생사 가르는 '구명조끼'(3.3.),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 해양 사고

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구멍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실험을 통해 구멍조끼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시청자로서 해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업 종사자들은 활동성 제한 등의 이유로 구멍조끼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구멍조끼 착용 여부는 생존율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양 사고 발생 시 중·저체온증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해양 활동자 들에게 구멍조끼 착용이 필수라는 점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연합뉴스TV가 지속적으로 조명해 주신다면 국민들의 해양 안전 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5년간 건설재해 사망자 1,211명...원인 1위는 '추락'(3.3),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의 1위가 '추락'이라는 점은 건설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보건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규격인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니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건설업체들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건설재해 문제를 조명해 주시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연합뉴스TV에서 공론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부 답변서 대체

앞으로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에 관심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부 답변서 대체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3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